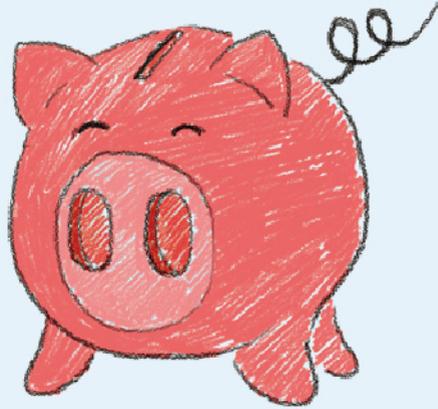




## 돼지 저금통



가끔 시내버스를 타면 나도 모르게 차안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눈이 간다. 승객과 기사님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이라지만 나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갑지만은 않다. 특별히 나의 오래전 경험으로 인해 CCTV가 단순한 기록장치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5년 전 나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했다. 사회초년생으로 첫발을 내디딘 직장에서 가장 나이 어린 버스 기사였다. 지긋한 나이의 아저씨들 사이에서 서른 살도 되지 않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운전기사였다. 시내버스 운전은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기에 입사 후 운전기술과 서비스 등 여러 교육을 받아야 했고 선임과의 인수인계도 까다로웠다. 일주일 이상 선임 기사의 차에 동승하여 운전을 배우고 노선과 요금도 익혀가며 여러 노하우를 습득해야 했다.

교육을 받던 어느 날 한 기사님이 조용히 날 불렀다.

“버스 운전 처음 하지? 운전이라는 게 안전도 중요하지만 초보자가 알아야 할 게 많아.”

그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이 버스 요금의 일부를 빼돌리는 방법이었다. 지금이야 버스에도 몇 개씩 CCTV가 설치되어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기사님도 없겠지만, 그 당시는 막 CCTV를 설치해 가는 시기여서 여러 가지로 취약점이 있었다. CCTV가 뒤에까지는 보이지 않으니 뒷좌석 손님 차비는 슬쩍 해도 된다거나, 화면 해상도가 안 좋으니까 걷은 차비를 대충 넣는 척하며 손 밑에 숨기고, 출입문 밖에서 요금을 미리 받아 일부만 돈 통에 넣으라는 등 여러 가지 요령을 알려주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며 내가 당황한 표정을 보이자

“너무 부담가질 것 없어. 다들 이렇게 해. 월급도 박하고 제 때 나오지도 않는데 좀 빼 쓴다고 크게 문제 될 거 없잖아? 안 그래?”

“그래도 좀.....”

“아, 왜 그래? 젊은 사람이 척하면 알아들어야지. 자네만 착하고 우린 뭐 다 나쁜 놈들인가? 자네가 그렇게 안하면 다들 들통 나서 문제만 더 커지네.”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곧 문제가 생길 것은 뻔했다. 똑같은 노선에서 다른 기사들이 운행할 때는 수입금이 적고, 내가 운행할 때만 수입금이 많다면 분명 회사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었다.

나는 영 마음이 내키지 않아 밤새 고민 끝에 다음날 견습을 시켜주시는 기사님께 물어보았다. 경험 많고 친절한 그 기사님은 무언가 해결책을 주실 것 같았다.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어. 다들 그렇게 해. 절대 걸릴 일은 없으니까 안심해. 정 찹찹하면 적당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말이야 큰 돼지 저금통 하나를 사서 매일 그 돈을 모으다보면 그것도 재미가 쏠쏠하거든.”

그 기사님은 안 그러겠지 하는 기대는 금세 실망으로 바뀌었고, 모든 기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남들도 다 한다는데, 조금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양심이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힘들게 얻은 첫 직장을 선임들 눈에 벗어나 금방 그만둘 수도 없었다. 더군다나 아내의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어 나에게서는 정말 소중한 직장이었다.

드디어 견습 과정을 마치고 차를 배정 받아 나 혼자 운행하게 되었다. 운행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수입금을 빼라고 알려준 기사님이 달려오셨다.

“확실히 잘 해! 내가 알려준 거 기억하지?”

어떻게 손님을 응대하고 안전 운행을 할지 걱정이 되었는데, 더 큰 걱정거리를 던져주고 갔다. 언제, 어느 정류장에서, 어떤 손님의 차비를, 어떻게 내 주머니에 넣어야 할지 운전 내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었다. 최소한 나의 양심에서 보면 그것은 엄연한 도둑질이고 나쁜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선임들 눈총에 나지 않으려면 할 수 없이 돈을 빼돌려야 했다.

오후가 되어 한 종점에서 손님 몇 명이 타고 나는 뒤로 가서 차비를 건다가 일부를 살짝 손바닥 안에 숨겼다. 그리고는 다시 CCTV와 손님들 눈을 피해 내 주머니에 넣었다. 심장이 멎을 듯 가슴이 쿵광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첫 날은 도저히 더 이상 요금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운행을 마치고 회사에 요금 통을 반납하는데 담당자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다. 퇴근 후 잠을 자려고 누워도 자꾸만 그 생각이 나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몇 번 요금을 가로채고 며칠이 지나자 죄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이었다. 나쁜 짓도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무감각해진다더니 꼭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나는 선임 기사님이 알려준 대로 돼지 저금통을 하나 사서 퇴근 후 주머니에 숨겨 왔던 돈을 저금통에 모았다. 그런데 재미있기는커녕 그 저금통이 무거워지는 것만큼 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운행 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 그날은 장날이어서 손님도 많이 타고

시간도 쫓기어서 정신없이 가고 있었다. 갑자기 갓길을 달리던 자전거가 휘청하며 내 차 앞쪽으로 들어왔다.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핸들을 돌려 가까스로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탄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고 불과 몇 발자국 차이로 내 차와 충돌하지 않았다. 다행히 할아버지는 다치지 않았고 나도 계속 운행을 할 수 있었지만, 한동안 입에서 쓴맛이 나고 다리가 덜덜 떨려 왔다.

‘만약 아까 그 할아버지를 받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터미널에 들어와 쉬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착하게 살라는 하늘의 뜻이야. 내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니까 하늘이 경고를 주는 거야. 이제 이런 옳지 못한 일은 그만해야지.’

나는 그 날 저녁 돼지 저금통의 배를 갈랐다. 그리고 다음 날 그동안 저금통에 모아 두었던 돈을 가져와 버스 요금 통에 넣었다. 동전들이 떨어지는 요란한 소리가 왜 이렇게 맑고 아름다운 음악소리처럼 들리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손님들 차비에 손을 대지 않게 되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회사내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회사에서 매일매일 CCTV 녹화 테이프를 철저히 돌려보고, 의심스러운 기사들을 불러 확인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노선에서 수입금의 차이가 생겨 다른 기사들을 의심하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되자 나를 보는 기사님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왠지 내 뒤에서 욕을 하는 기분이 들었다. 얼마 후에는 몇몇 기사님들이 발각되어 배차를 못 받거나 배정받은 차를 뺏기는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전 직원들을 모아 놓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CCTV의 설치를 늘려가고 최대한 급여를 제때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또 열악한 기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감안하여 CCTV 관리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약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걸 기사님들은 깨닫게 되었고, 또 회사의

배려에 많은 기사님들도 마음을 돌리게 되었다. 사실 그 기사님들도 그런 행동을 하면서 결코 마음이 편치는 않았으리라.

그 뒤 나는 걱정했던 것처럼 기사님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질책을 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친절하고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에서 모범 운전자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몇 년을 더 근무한 뒤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퇴직할 때 회사의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사실 현석씨가 버스 운전경력도 없고 나이가 어려 입사를 안 시키려 했지. 그런데 현석씨 인상을 보니 적어도 양심에 어긋난 일을 할 사람 같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줄 것 같아서 내가 합격 시키자고 했지. 계속 있어주면 좋겠지만 더 좋은 일을 한다니까 축하하고 다음에 또 인연이 되면 만나세.”

나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부끄러운 마음과 그래도 내가 이 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도 가끔 그 때 내가 그런 일을 멈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보곤 한다. 정말 앞이 캄캄해 오고 여러 모습들이 상상된다. 회사는 계속 경영에 어려움을 겪었을 거고, 기사들 중에 몇은 전과자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나 역시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항상 옳고 청렴하게만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한 번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의 깊은 수렁으로 점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남들 다 하는데 좀 하면 어때?, 나 하나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생각들은 자기의 비양심과 부정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나는 요즘도 돼지 저금통에 동전을 모으는 습관이 있다. 비록 금방 돼지 저금통이

무거워지지는 않더라도 깨끗한 돈으로 돼지를 살찌우는 재미가 쏠쏠하다. 통통한 불량 돼지가 아니라 양심 돼지, 청림 돼지이기 때문이리라. 